

# 경북매일

인쇄하기  창닫기

▶ 홈 > 뉴스 > 사회 > 일반

## 포스텍,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받아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팀

2006년부터 4번째 대상 수상

최다 大賞 배출기관 이름 올려

2015년 11월 27일 (금)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mailto:phil@kbmaeil.com)



포스텍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포스텍의 이번 수상은 2006년, 2007년, 2011년에 이어 4번째 수상으로 이로써 포스텍은 최다 대상 배출기관에 이름을 옮리게 됐다.

'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해 26~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사진> 교수팀은 (주)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과 산학협력을 통해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이용한 수술 후 유착 방지제 '메디커튼'에 대한 원천기술을 발표, 대통령상을 받았다.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자궁경 수술 등 여러 종류의 수술 후에 동반되는 염증 및 혈액응고로 인해 피부나 막 등이 달라붙는 유착현상은 소장폐색, 장천공, 만성골반증 등의 각종 후유증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유착 방지제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연구팀이 개발한 메디커튼은 히알루론산과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를 주성분으로 이용해 상처치유와 체내 조직 유착 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기업체와 대학의 공동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 사례로써 바이오·제약 산업계의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커튼의 우수성과 안전성은 동물실험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으며 수년 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세광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신풍제약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나노의약개발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다양한 의약품 개발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 닫기](#)